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김 지 흥*

I

본고에서는¹⁾ 언어 범주의 핵(head)이라고 간주되는 기능범주들이 무질서하고 자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격히 제약되어 동사구와 명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어휘범주(lexical categories)의 주요 항목으로서 동사와 명사는 통합적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계열적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이들이 계열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것은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ies)의 도움을 빌림으로써, 명사의 투영이 동사구처럼 행동하게 되고, 동사의 투영이 명사구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체가 가능하다면, 기능범주들 사이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주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기능범주의 상동성²⁾ 가정'이라 부르기로 한다. '상동성'이란 용어는 강한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약한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강하게 쓰이면, 임의의 두 대상 X와 Y가 완벽히 동일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이 글에서 취하는 바가 아

* 경상대 교수

- 1) 본고는 1999년 11월 27일 배달말학회 학술발표대회(진주)에서 '기능범주의 상동성에 대하여: 특히 동사구와 명사구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 2) 상동성(相同性: 서로 닮아 있음)이란 말은, 'homomorphism'을 가리키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사성(類似性)이란 말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동사구와 명사구의 기능범주들이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상동성의 반대 개념으로는 상이성(相異性)이란 말을 쓰기로 한다.

니다. 약한 뜻으로는, X와 Y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공통 자질이나 속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상동성'이란 말을 쓰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상동성 가정'이 성립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흔히 동사구와 명사구가 통합관계에 있는 것만을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이들로부터 전혀 유사성이 찾아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보편문법의 연구에서 개별 언어에 관여하는 기능범주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음이 드러나면서, 암묵적으로 믿어져 오던 '상이성 가정'이 꼭 옳은 것일 수 없음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교차어의 특질 때문에, 국어에서는 기능범주 형태소들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의 분포에 주목하면, 어떠한 기능범주 형태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을 일반화하거나 형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II

2-1. 통사의 투영에 관여하는 범주는 어휘범주와 기능범주로 나뉜다. 어휘범주는 실제적 속성([+N])과 서술적 속성([+V])을 기반으로 하여, 다시 네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뉜다. 여기서 [-N,+V]의 자질을 갖는 동사와 [+N,-V]의 자질을 갖는 명사만이 논항구조의 투영에 관여하게 된다. 기능범주를 학교문법 용어로 표현한다면, 선어말어미의 속성([+I])과 어말어미의 속성([+C])을 기반으로 하여, 네 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어휘범주에서처럼 이 두 자질을 배합하여 복합자질을 만들면, [+I,-C], [+I,+C], [-I,-C], [-I,+C]가 나온다. 이들 중 [+I,-C]와 [-I,+C]를 각각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에 배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I,+C]와 [-I,-C]이다. 전자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미이다. 국어에서 그 후보를 찾는다면 연결어미 부류이다. 후자 [-I,-C]는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의 속성을 전혀 지니지 못한 부류이다. 이 후보로서 이론상 두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완전히 어말어미 계층 밖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어미이다. 다른 하나는 선어말어미 계층 안쪽에 실현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되는 어미이다.

이들 가운데에서 앞의 경우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말어미가 통사를 종결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어말어미 밖에 다시 어떤 어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화용적(pragmatic)인 내용을 담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 화용 층위가 늘 어말어미 층위에 붙어서 구현된다면, 이는 구조적 특성으로 포착될 수 있으므로,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자가당착이다. 설혹 화용 요소를 상정한다면,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오직 화용상의 특정한 목적을 구현해 주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신, 선어말어미 층위 안쪽에 나타나는 요소를 검토해 보자. 선어말어미 안쪽에 나타나는 요소는 이른바 '어간' 형성에 관여하는 것들이고, 이들은 학교 문법에서 접미사로 취급되고 있다. 접미사는 어미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미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선어말어미 층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게 있을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 층위가 시제소(T)의 하위에 있는 일치소(AGR) 층위임을 가정할 것이다.³⁾ 동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를 논의하면서, Pollock(1988)에서는 선어말어미([+I,-C])가 시제소(T)와 일치소(AGR) 층위로 나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시제소 층위가 선어말어미의 핵심 층위라고 한다면, 이 층위 안쪽에서 시제소로부터 지배되는 하위의 층위가 일치소 층위이다. 이 주장을 수용하면, 시제소 층위는 [+I,-C]의 자질을 갖고 있으며, 일치소 층위는 시제소로 대표되는 선어말어미 층위 안쪽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I,-C]의 자질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동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는 사건을 완결짓는 속성 [\pm]과 청자를 고려하는 속성 [\pm C]에 의해 하위에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I,-C]는 일치소 구절의 핵어이고, [+I,-C]는 시제소 구절의 핵어이며, [+I+C]는 접속소 구절의 핵어이고, [-I+C]는 서법소 구절의 핵어이다.

2-2. 동사구의 투영(VP)은 차례로 일치소(AGRP)에 의해 지배되고, 시제소(TP)에 의해 지배되며, 다시 접속소(&P)에 의해 지배되고, 마지막으로 서법

3)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이하에서의 논의에서는 각각 일치소·시제소, 접속소·서법소들로 나누어 부를 것이다.

소(CP)에 의해 지배된다. 일치소는 인도-유럽 언어에서는 성·수(격)에 따라 일치를 구현한다. 국어에서는 대우의 모습에 따라 일치를 구현한다(이승녕 1983에서는 '신분성' 구현으로 봄). 앞의 일치는 엄격히 통사 층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뒤의 경우는 대우의 상대적 편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화자의 '대우의 의도'에 따른 변동이 생겨날 수 있다.

시제소 층위에서는 사건의 진행 모습을 가리키는 상 체계와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 시점들 사이의 선후 관계를 가리키는 시제 체계로 나누는데, 두 체계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들도 있다. 시제소와 관련하여, 사건과 화자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상소(modality)를⁴⁾ 시제소 하위 층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다른 층위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몇가지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 없이, 일단 양상소의 처리가 매개변항의 설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시제소의 투영을 지배하는 기능범주는 접속소(&)이다. 접속소는 [+I,+C]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제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문장을 종결짓는 서법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에서 찾아지는 접속소(=연결어미)는 이러한 기대를 모두 만족시켜 준다. 종속 접속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 가운데에 시제 형태소의 실현이 거부되는 것들이 앞의 사례들이다. 또한 '절단' 현상으로 기술되는 접속소의 종결어미되기는 뒤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
- 4) 흔히 여섯 가지 양상을 거론하는데,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적 양상과 잠재적 가능성이 대립되고(counterfactual:potentiative), 허락이나 의무 또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허용 양상과 이에 반대되는 금지 양상이 대립되며(jussive:prohibitive),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바람이나 기대 등을 포함하는 의도 양상과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 양상의 대립(volitive:apprehensive)들이 그러하다. 이들을 상위 개념으로 가능태와 불가능태(realis:irrealis)로 표시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어는 영어와 달리 양상을 표현하는 독립된 단어가 따로 없다는 특성이 있다. 매개변항을 설정하여, 국어와 같은 언어일수록 양상소를 독립시키지 말고 시제소의 하위 층위로 넣고, 영어와 같은 언어일수록 양상소 층위를 시제소 층위 밖에 따로 마련해 두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상소의 개념이 반드시 사건과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이나 시제의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접속소의 투영(&P)을 지배하는 기능범주로서 마지막 층위에 서법소(C)가 실현된다. 서법소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요소로서, 이로써 통사 차원의 투영은 종결되며, 따라서 문장의 투영은 'CP'로 표시된다. 꺾쇠 괄호를 써서 이들 기능범주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1)과 같다 (이하 동일하게 후핵성 매개변항만을 적용함).

- (1가) [[[[[...VP] AGRP] TP] &P] CP]
 나) ... 가 시 었 고 ◦
 다) ... 가 시 었 ◦ 습니다

(1가)는 기능범주들의 핵어가 계층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1나)와 (1다)에서는 각 범주의 실현 사례가 선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1가)의 층위 위에 다시 화용적인 목적으로 소수의 형태소들이 실현된다. "간다+은다, 가자+스구나, 먹어+으라, 갔다+으며, 뭐라+고" 등의 예에서 보듯이, 문장을 종결을 짓는 형태소 뒤에, 다시 몇몇 형태소가 덧붙고 있다. 이들은 Grice(1989:56)의 지적에서와 같이⁵⁾ 화용적인 정보들을 더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동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⁶⁾ 이 글에서는 (1)의 층위를 일단 옳은 것으로 수용하고, 명사구에서 각 층위에 해당하는 기능범주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기로 한다.

-
- 5) "Smith is happy."와 "It is true that [Smith is happy]."가 속뜻 깔아 넣기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뒤의 발화에서는 ① 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② 당연히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어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이를 미리 갖고 있지 못하거나, ③ 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그 정보를 고쳐 주어야 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모두 청자 쪽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 연구에서는 "[CP]+은다, [CP]+은 말이다"와 같은 형식을 '강조 용법' 정도로만 기술해 왔는데, 앞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6) 접속소(&)의 투영에 대해서는 줄고(1998)와 그곳에서 언급되는 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2-3-甲. 명사구(NP)의 기능범주 투영이 동사구(VP)의 것과 같음은 Abney(1987)에서 처음 지적되었다. '상동성 가정'은 여기서부터 물꼬가 트이는데, 그는 다만 동사구의 일치소(AGR) 층위에 국한하여, 동일한 내용이 명사구에서 넓은 의미의 '지시사'(Determiner) 범주로 실현됨을 여러 언어의 자료로써 논증하였다. 즉, '일치'라는 속성은 동사구에서뿐만 아니라 명사구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일치'의 속성만을 놓고 살펴보면, "[[학생] 한 사람]"의 사례에서 일치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곧, 수량사에 의무적으로 따라 붙는 '분류사'(=수량단위 형식명사)가 언제나 선행하는 명사와 '일치' 관계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위 '분류사' 언어로 구분되는 중국어나 일본어 및 동남아 언어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⁷⁾ 일치의 구현 방법을 매개변항으로 표현한다면, D(=AGR)는 성·수에 따라서 일치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⁸⁾ 수량 분류단위에 따라서 일치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는 인도-유럽 어들에서 그러하고, 뒤의 경우는 국어를 비롯하여, 동남·동북 아시아에 있는 언어들에서 그러하다.

인도-유럽 어의 경우에는 동사구와 명사구에서의 일치 속성이 동일하게 성·수이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동사구와 명사구에서의 일치 속성이 동일하지 않다. 이는 국어에서의 일치 속성이 더 통합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우 일치의 개념과 분류사 일치의 개념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

7) 이런 지적이 처음 체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Tang(1990)과 Label(1990)이다. 명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를 AGR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은 Ouhalla(1991)을 참고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Abney(1987)의 결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의 분류사를 AGR로 가정한 것은 Gerdts(1985)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다만 범주의 딱지로서만 AGR을 썼기 때문에, 자세한 설정 동기는 알 수 없다. 줄고(1997)를 참고하기 바람.

8) Greenberg(1978:49)에 보면, '성'을 구분해 주는 'gender'의 개념은 원래 'genre'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곧, 문법적인 '성'의 원초 개념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분류인 것이며, 이 때문에 자연적인 성과 문법적인 성이 서로 부합된다고 말할 수 없다. '종류' 또는 '갈래'라는 개념이 발달하여 '성'이라는 개념으로 문법화되었음이 사실이라면, 국어에서의 '분류사' 설정은 원초 개념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 일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사물이나 사람이나 하는 구분이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의 경우에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대상에 대한 대우 관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 일치는 뒷 단계의 일치에 치우쳐져 세분되는 것이고, 분류사 일치는 앞 단계의 일치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국어에서 수량사를 포함한 구절은 선행하는 명사와 ‘공기’ 또는 ‘일치’ 관계에 놓이는 분류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점에서 분류사는 일치소(AGR)의 일원이다. 분류사는 음성 실현 형식이 있는 외현범주(overt category)로도 나올 수 있고, 음성 실현 형식이 없는 공범주(empty category)로도 나올 수 있다. 국어에서 수량사 구절은 다음 (2)에서와 같이 두 개의 형식을 갖는다.

(2가) [사과 [두 개]] → “사과 두 개”

나) 두 개의 [사과 [e_i]] → “두 개의 사과”

이들 가운데, (2가)가 후핵성 매개변항에 따라 전형적인 구성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서로 내포의미가 다르다. (2나)는 논의되는 대상이 전체(whole)임을 지시한다. 즉, 거론되고 있는 대상의 총체적 숫자가 ‘두 개’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구성인 (2가)는 거론되고 있는 대상이 ‘두 개’ 이상 더 있음을 전체로 한다. 이 점에서 전체의 일부를 표시해 주는 부분사(partitive)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 수량사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은, 개체화된 어떤 대상의 숫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본분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그 숫자가 전체 숫자

9) 분류사가 일치소의 일원임이 사실이라면, 논리 형태(LF)에서 다루어 오고 있는 양화 표현들은, [[[...] 수량사] 분류사]의 층위를 갖는 국어 자료를 고려할 때, 언제나 DP(=AGRP)의 안쪽에 위치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 $\exists x(Hx)$ ’, ‘ $\forall x(Hx)$ ’라는 표현이 완결된 논리식이 아니라, 이 위에 다시 ‘ $Dx[\exists x(Hx)]$ ’, ‘ $Dx[\forall x(Hx)]$ ’와 같은 상위 계층의 연산자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유일한 대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 ex ’와 같은 연산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연산자는 두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존재양화사($\exists x$)와 그 개체의 유일성(unicqueness)에 대한 전제이다. 여기서 이 두 속성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 층위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층위에서 유일성이라는 자질을 더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관사와 지시사가 동일한 층위에 상보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임을 나타내는 정보는 덧없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은 (2가)와 (2나)가 동일한 외연값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내포값이 다름을 의미한다.

(3가) [사과 [두 개]] : 기본 구성으로서의 외연값

나) 두 개, [사과 [t_i]] : 그 숫자가 전체 숫자임을 표시(다른 내포값)

다) 두 개,의 [사과 [t_i]] : '보충어+핵어'의 해석을 막기 위해 default Case¹⁰⁾ 배당

10) default는 전산학에서 '기본 값'이나 '기정(既定)값' 또는 '당연값'으로 번역된다. 격이 이미 기본값(초기값)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은, 다른 격이 주어지지 않고 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격이 배당된다는 뜻이다. 명사구에서의 기본값(초기값)을 갖는 격은 '의'로 생각된다(동사구의 경우에는 '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강명운 1991). default Case(기본값의 격)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순이 사진'에서, 두 개의 명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후핵성(後核性)의 매개변항에 따라 앞에 있는 요소는 핵어의 논항으로 해석된다. 전형적인 논항구조를 상정하면, 그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충어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어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앞의 경우는 '순이'가 피사체 해석을 받아, 순이가 찍혀 있는 사진이 되지만, 뒤의 경우는 소유자 해석을 받아, 순이가 갖고 있는 (풍경) 사진이 된다.

'여왕 벌 : 여왕의 벌'이나 '딸 자식 : 딸의 자식'의 사례를 보자. 여기서 대립되는 사례들의 어휘범주는 동일하다. 그러나 기능범주인 격조사의 실현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것이 의미 해석의 차이를 유발한다. '여왕 벌'과 '딸 자식'의 경우도 '순이 사진'에서처럼 앞의 명사구가 보충어로도 해석될 수 있고, 지정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 지식에 근거하여 핵어인 '벌'과 '자식'의 속성을 표현해 주는 보충어로의 해석이 가장 그럴 듯한 것으로 이해한다(여왕이 벌이 되고, 딸이 자식이 되는 이른바 '동격 구조'임). 그러나 '여왕의 벌'과 '딸의 자식'에서는 이런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의'가 실현되며, 이 실현에 의해 후핵성 매개변항과는 관계없이 앞에 있는 명사가 핵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석이 여왕이 기르고 있는(또는 화용 상황에 따라 무한한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애지중지하는 따위임) 벌이라든지, 딸이 낳은 자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의'를 '기본값의 격'으로 간주되고 후핵성 매개변항의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여, 모든 '의'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행위성 사건 명사에서 관찰되는 '의'는 전형적으로 지정어 논항에 실현되고, 이와 대립되는 '사이시옷'은 보충어 논항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격을 차용해야 한다면, '사이시옷'을 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의'를 빌려 온다는 뜻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구조를 바꾸는 이동(move-a)이 의미 차이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촘스키 문법으로부터 벗어나,¹¹⁾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쪽에 선다면, 내포 의미가 달라지는 과정을 (3)에서와 같이 보일 수 있다. (2가)와 (2나)가 동일한 외연값을 갖는 까닭이 (3가)를 기본구조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나)는 (3나)와 (3다)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새롭게 내포 의미가 더 붙게 되는 것이다.

2-3-乙. 동사구에서 일치소 구절(AGRP)은 시제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시제소 구절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완결시킨다는 점에서, 완결된 명제를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시제소 구절에 상응할 만한 후보를 명사구의 기

- 11) 다만 격을 받기 위해 이동을 한다는 수동 표현도, 행위주 논항이 늘 수의적이라는 점에서 표현 가치상 서로 차이가 있다. 행위주 논항의 수의성 때문에, 수동(impersonal passive) 표현과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의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Perlmutter 1978). 최근의 어휘 표상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He gave a card to her (주는 행위만 기술하고 있지, 그녀가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가 없음) : He gave her a card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녀가 카드를 갖고 있다는 함의가 있음)”의 여격 교체나 “He loaded trash into his car (차에 싣는 행위만을 기술함) : He loaded his car with trash(차에 싣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차가 쓰레기로 꽉 차 있음은 함의함)”의 처격 교체의 사례들을 통하여, 이동이 의미 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Pinker 1989에서 자세히 다루어짐). 이들이 공통된 의미역을 갖고 있지만(따라서 동일한 초기 표상을 갖고 있지만), 통사 실현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말에서도 동일한 격조사를 갖고 있더라도, 이동이 일어나면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들이 있다(손남익 1999). “철수가 동수와 농구를 한다 : 동수와 철수가 농구를 한다” 앞의 문장은 농구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임을 함의하고, 따라서 서로 다른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뒤의 경우는 중의적인데, 앞의 해석뿐만 아니라, 동수와 철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그 경기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경우 동수와 철수가 서로 다른 편이라는 함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수가 장난감을 고물로 만들었다 : 명수가 고물로 장난감을 만들었다”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경우는 ‘고물’이 결과물이지만, 뒤의 경우는 결과물일 수도 있고, 재료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동사의 변동이나 확장을 가정하기도 한다(Levin & Rappaport 1998). 이들이 서로 다른 동사가 아니라면,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일한 초기 표상을 상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도출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능범주에서 찾아내려는 논의는 아직 진지하게 제시된 바 없다. 본 발표에서는 시제소가 사건의 위치를 결정하듯이, 명사구에서도 대상의 위치나 범위를 표시해 주는 요소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잠정적으로 이를 '위상' (位相) 표시소 또는 '위상소'라고 부르기로 한다.¹²⁾

국어에서의 예를 살펴보면, "[[[어른_{NP}] 한 사람_{AGRP}] 앞], [[[책상_{NP}] e_{AGRP}] 속], [[[머칠_{NP}] e_{AGRP}] 뒤]"와 같은 경우가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사람_{NP}] 들_{AGRP}] 모두], [[[편지_{NP}] 들_{AGRP}] 하나하나], [[[마음_{NP}] e_{AGRP}] 만]"과 같은 경우가 범위를 표시해 주는 경우이다(밑줄 친 부분).¹³⁾ 이들이 기능범주의 핵어임이 증명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¹⁴⁾ 첫째, 이들 구성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는 합성어 구성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이들이 숫적으로 제약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능(즉, 범주자질)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이들이 합성어 구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른 한 사람][앞], [사람들][모두]"들에서 두 구성 요소를 바꾸어 표현할 수 없다 (*"[앞][어른 한사람], *[모두][사람들]"). 또한 합성어 구성을 이룬다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 오직 하나의 대용 표현으로 지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적인 대용만을 허용한다("[그][앞], [그들][모두]"). 따라서 이들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위상소의 숫자가 다소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제약을 찾을 수 있으며, 이

12) 이들은 'relator nouns, secondary postpositions, positional nouns, adverbial nouns'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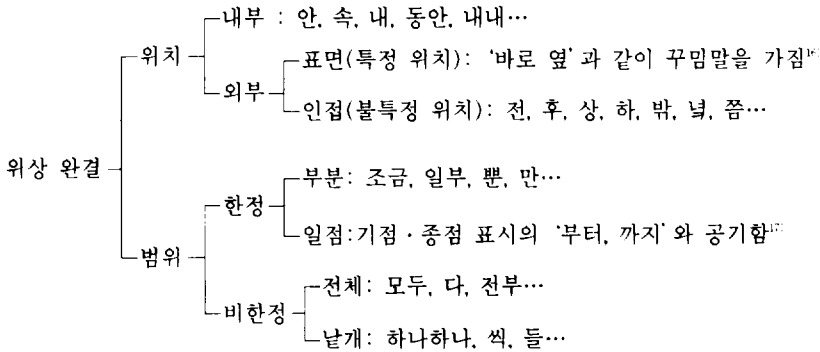
13) Watanabe(1993:ch.6)에서는 나바호 인디언 어·일본어·영어 자료들을 근거로 positional phrase를 상정하고 있다.

14) 무엇이 핵어인지에 대한 논의 요약은 줄고(1998:18)에서 언급되고 있다. 크게 보아, 구조에 의한 정의와 의미(=개념)에 의한 정의로 나눌 수 있다. 기능범주 핵어에 대한 구조적 정의는, 논항구조를 투영하고, 필수적이고, 유일한 교점을 만들며, 범주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상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필자로서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로 정의하는 쪽을 선호한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형태론적인 속성들이 추가된다. 접사적인 특성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특성과 숫적인 제약 등이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약을 범주자질로 상정할 수 있다.

(4) 위상소의 분류: [위치나 범위를 완결지워 줌]¹⁵⁾



위치나 범위를 표시하는 일반 명사가 이미 문법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통문법에서도 이미 잘 깨닫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지 않고, 다양하게 형식 명사, 보조사, 접미사, 부사 등의 범주로 따로 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위치나 범위를 표시해 주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간결할 뿐만 아니라, 명사구 표현의 분석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15) 물론 이 분류가 더 정밀하게 통합될 수도 있다.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내부와 외부가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위상을 표시하는 요소들이 어떤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한편 Blake(1994:17)에서는 아프리카 Swahili 어에서 특정 위치·불특정 위치·내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접두 형태소를 쓴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Talmy(1983:242)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 'in front of: in the front of'는 표면에 붙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관사가 있는 경우는 표면이나 기점에 바짝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17) 보조사로 취급되는 '쯤, 만, 부터, 까지' 등이 위상소로 취급될 수 있음은, 이들 뒤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주격이나 대격 조사가 이들 뒤에 실현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 위상소들은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되기도 한다. '쯤만, 예서만, 까지만' 과 같이 경우이다. 이 결합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상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있다.¹⁸⁾

이 기능범주의 존재는 또한 시제소를 설정하는 동기와 매우 닮아 있다. 시제소는 시간선 상에서 사건의 위치를 정해 주는 것이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사건을 안에서 바라보는 경우와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경우로 나뉜다. 문법적인 상(aspect)은¹⁹⁾ 기본적으로 사건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시제(tense)는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시점들 사이의 선후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완료성 여부와 삼분법에 기초한 시제 표시의 방식은, (4)에 제시되어 있는 갈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되어 있다. 이는 사건을 파악하는 우리의 시각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다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내부에서 기술하느냐 또는 외부에서 기술하느냐 하는 구분은 위상을 표시해 주는 요소들을 나누는 방식과 아주 닮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상소와 시제소가 차이가 있다면, 위상소는 위치와 범위로 나뉘지만, 시제소는 위치와 방향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명사가 대상이나 사물을 가리키므로 정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동사가 행위나 사건을 가리키므로 동적인 특성을 지니는 데에서 말미암을 뿐이다.

2-3-丙. 동사구를 이끄는 시제소는 다시 접속소에 의해 지배된다. 명사구를 이끄는 위상소 또한 접속소에 의해 지배된다. 접속소는 문장을 접속하는 경우를 'Boole' 접속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접속을 '비 Boole' 접속이라고 부른다(Krifka 1990). 비 부울 접속의 대표적인 사례는 명사구 접속이다. Wilder(1997)에서는 이른바 '작은 접속구'(small conjunct)라고 불리우는 동사

18) Jackendoff(1990:29)에서도 동사에서 찾아지는 'telic:atelic' (종결:비종결) 구분을 'count:mass' (가산명사:불질명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와 같이 상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췌킨똥은 특히 통사 층위와는 별개로 개념(I-semantics) 층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사한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법하다.

19) 어휘적인 상(Actionstyp)을 가르는 순간성(또는 一點性) 여부는, 국어에서 독립된 형태소로 구현되는 법이 없다. Comrie(1976:6)에서 문법적인 상(aspect)를 'the internal structure of a situation'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구나 형용사구의 접속이 언제나 문장 접속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사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²⁰⁾ 최근의 연구를 참고하면, 접속을 구현하는 기제는 가장 무표적인 것이 아무런 형태소도 없이 다만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한다(並置, juxtaposition, parataxis). 이는 공범주 형태의 접속소 설정과 일치한다. 이보다 조금 복잡한 모습이 부울 접속에서나 비 부울 접속에서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의 'and'가 그 사례이다. 더 복잡한 것은 부울 접속에서와 비 부울 접속에서의 형태소를 서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다. 국어가 그 예이다. 단순히 어느 한 방식만을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도 하고, 이외에 전치사나 후치사를 이용하거나 대명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추가되므로, 접속소의 구현은 언어에 따라 선택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국어에서 명사구를 이끄는 접속소는 늘 위상소를 지배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하다. 다만, 명사를 이끄는 접속소가 '와/과'에서 보듯이 고유한 형태소로 있고, 이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기원되는 것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다, 하다' 동사를 기원으로 하여 부울 접속을 이끄는 형태소가 구현되거나, 또는 특이하게 '및'과 같이 동사의 어근이 그대로 문법화된 경우이다. 고유한 접속소 '와/과'는 이른바 격조사(특히 대격 조사)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이것과 저것과]를 뒤섞었다."). '이다, 하다'에서 기원한 접속소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너하고 나하고]를 같은 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및'과 같은 형태소는 결코 격조사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담배 및

20) 이른바 접속문에서 관찰되는 생략의 문제는 언어학계에서 아직 해결된 바 없다. 생략의 문제를 빼어내기(extraction)로 볼 것인지, 지우기(deletion)로 볼 것인지, 비워 두기(gapping)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주(empty category)의 실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생략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 접속문에서의 대용이다. Dalrymple 외(1999)에서는 "철수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영수도 그런다."에서 밑줄친 대용 표현이 중의적임을 지적한다. 하나는 각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같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해석이다. 그곳에서는 이를 '영역의 중의성'(scope ambiguity)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마 구조적으로 이 중의성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방식이 찾아진다면, 접속문에서의 생략을 설명해 주는 방식과도 일치되지 않을까 싶다.

성냥 밧]을 샀다.”). [$X_1 \&_1, X_2 \&_2, \dots, X_n \&_n$]와 같이 접속소가 이어질 적에, X가 동사인 경우 등위접속에서는 n번째 &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종속접속에서는 n번째 &는 의무적으로 공범주로 실현되거나 또는 탈락되어야 한다. 명사구의 접속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와/과’는 등위접속의 경우처럼 n번째 &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밧’은 종속접속의 경우처럼 n번째 &가 반드시 공범주로 실현되거나 탈락되어야만 한다.

2-3-丁.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층위는 서법소(C)와 관련된다. 명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에서 과연 서법소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서법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서법소의 기능은 화자와 청자의 관련을 표시해 준다. 화자가 언어로 표현된 어떤 사건을 청자에게 알려 준다거나(단정 서술), 또는 청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서법소의 역할인 것이다. 이 때 청자의 반응은 언어로써도 가능하고(의문 감탄), 언어 이외의 행동으로써도 가능하다(명령 청유). 그런데 서법소가 청자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명사구에서 청자와 관련지을 수 있는 요소가 찾아질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명사구는 청자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장을 이룬다면 동사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 있는 요소와의 관련을 이들이 떠맡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법소는 청자와의 관련을 맡고 있으므로, 명사구에서는 동사와의 관련을 맡고 있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들이 서로 상호적인 기능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명사가 동사와 관련되는 것은 ‘격’이라는 요소의 역할이다. 그러나 격은 만만하게 취급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촘스키 문법에서는 격을 구조격과 고유격(inherent case)으로 나눈다.²¹⁾ 구조격은 구문의 형상에 의해서

21) 격이 일치에 의해서 배당되거나 확인된다는 가정을 따르면, 논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격은 일치소 층위에서 배당되지만, 주격은 시체소 층위에서 배당되기 때문이다. 즉, DP라는 범주로 표시되는 명사구는 다만 피동적으로 격이라는 옷을 끼어 입는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본 발표에서의 가정과 아주 다른데, 여기서는 격에 관한 한 명사구도 동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를 갖고 있다고 본다. 곧, 명사구는 반드시 격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place holder)를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주어지지만, 고유격은 동사의 개별 의미에 따라 주어진다. 이 구분은 회랍의 전통문법에서 직격(直格, 正格)과 사격(斜格)으로 나눈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 가정이 옳다면, 구조격은 동사와 관련이 없이 주어지므로, 명사구의 기능범주 후보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격은 개별 동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이를 명사구의 기능범주에 갖다 붙일 수는 없다. 혹, 구조격은 명사구의 기능범주이지만, 고유격은 명사구의 기능범주가 아니라고 선언만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왜 같은 범주의 '격'으로 묶이는지를 구명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구명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본 발표에서는 구조격과 고유격이 먼저 하나로 묶여야 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우선 국어에서 흔히 관찰되는 무표격을²²⁾ 주목하기로 한다. “철수 학교 갔다.”라는 예문에서, 밑줄친 두 개의 명사구가 격 표지가 없이 실현되어 있지만, 행위주와 처소라는 의미 관계에 결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각 명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철수 영이 사랑한다.”의 경우는 다르다. 두 개의 명사가 지시 대상이 다르다는 점만을 빼고, 거의 동일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행위주이고, 누가 대상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둘다 행위주이거나([철수와 영이]가 X를 사랑하다)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X가 [철수와 영이]를 사랑하다).

실세계의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꽃 피었다.”라는 예문에서 밑줄친 명사구는 대상 의미역을 받는데(비 대격 동사), 행위주라든지 사격 의미역이 배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는 것일까? 필자는 논항의 실현 위계가 이미 전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

갖고 있거나 또는 공범주 요소의 격을 내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22) 부정격(不定格)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으나, 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 격이라도 배당될 수 있음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대신 격 표지가 외현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으로, 무표격(無標格, unmarked case)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무표격의 기능을 강조나 초점 등의 화용 자질을 유무로써 다룬 연구도 있다. 여기서는 화용적인 가치를 논외로 하고, 다만 공범주 형태의 무표격이나 음성 실현 형식을 갖고 있는 유표격이 문법 관계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고 본다. “철수 영이 사랑한다.”에서도 전형적인 논항구조의 위계를 생각하면, 가장 쉬운 해석이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다.”의 뜻을 갖는 행위주와 대상의 관계이다. 논항이 위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항에 배당되는 의미역도 1:1로 대응될 수 있도록 위계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Grimshaw 1990, Baker 1996 및 1997).

무표격의 존재를 통해,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뽑아낼 수 있다. ① 논항의 실현 위계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미 주어져 있음을 드러낸다(전형적 논항구조에서 지정어와 보충어의 위계임 : Chomsky 1995). ② 격이 비록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논항구조에서 동사에 의해 배당 가능한 격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③ 각 논항에 위계화된 의미역이 배당된다면, 격 배당(또는 격 확인)이란 한 사건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격’은 논항구조와 의미역 위계에 의해서 배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조격이나 고유격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행위주나 경험주 의미역을 배당받는 경우 주격으로 실현될 후보가 되며, 대상 의미역을 배당받는 경우 대격으로 실현될 후보가 된다. 다만 사격 논항에 배당되는 사격 의미역의 하위 갈래가 다양하므로, 어떤 하위 의미역을 배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사마다 고유하게 개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동사의 개별 의미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격 의미역의 하위 갈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정어와 보충어가 아닌 제 3의 논항에는 사격만이 배당될 수 있는 남은 후보일 뿐이다.

격이 논항구조와 의미역 위계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배당될 후보가 결정된다면, 명사구의 기능범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명사구에 격을 받아들이거나 흡수할 수 있는 ‘빈 자리’(place holder)가 주어져 있다고 본다. 이를 기능범주의 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본값(default)으로서 공범주 핵어가 격이 나타나는 위치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범주 핵어는 어떤 격 요소라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성질이 명사구를 동사구에 붙여 놓는 역할을 하게 되고, 명사구 차원에서 동사구 차원으로 관련을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마치 동사구의 마지막 기능범주 핵어인 서법소가 청자와의 관련을 드러내는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것과 공통성을 지닌다.²³⁾

이상에서 언급한 명사구를 이끄는 기능범주들은 다음 (5)에서처럼 나타낼 수 있다.

(5가) [[[[[… NP] AGRP] RP²⁴⁾] &P] Case]

나) …고구마 열 개 모두 ◦ 를

다) … 사람 들 하나하나 와 ◦

2-4.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 (1가)와 (5가)를 다시 아래 (6가)와 (6나)에 가져 오기로 한다.

(6가) [[[[[… VP] AGRP] TP] &P] CP]

나) [[[[[… NP] AGRP] RP] &P] Case]

이들의 층위는 서로 상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일반화하여 다음 (7)로 나타낼 수 있다.

(7가) [[[[[…어휘범주 XP]_㉑ 일치소] 시공 위상소]_㉒ 접속소] 타 차원 관련소]_㉓

나) [[[…어휘범주 XP]_㉑ 사건 완결 요소]_㉒ 확장 관련 요소]_㉓

(7가)는 어휘범주의 최대투영 XP는 일치소와 시공 위상소, 그리고 접속소와 관련소에 의해 이끌림으로써 투영이 완결됨을 나타내고 있다. (7나)는 이를 더

23) 명사구와 관련된 격이 동사구와 관련된 서법소와 상관된다는 진술은 매우 이례적으로 생각될 듯하다. 여기서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대상 속에서 어떤 통합 속성을 찾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일반화되고 추상화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명사구에 관련되는지 또는 동사구에 관련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서 상정되고 있는 추상적인 공통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추가 조건이 덧붙여져 도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

23) 임시로 위치와 범위를 포괄하는 위상소를 가리키기 위해 *relator*라는 용어의 두문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용어는 시공 위상소라는 용어의 하의어로 들어간다.

욱 간단하게 표현한 것인데, 어휘범주(아랫첨자 甲으로 표시됨)는 사건을 완결짓는 요소(아랫첨자 乙로 표시됨)와 이를 확장하거나 다른 것에 관련짓는 요소(아랫첨자 丙으로 표시됨)에 의해 투영이 완결된다. 동사구와 명사구를 지배하는 기능범주들은 각각 (6가)와 (6나)처럼 위계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7가) 또는 (7나)와 같이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

III

3-1. 그런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기능범주들이 있다. 동사구의 경우 총위 밖의 요소들이라고 하였던 '화용' 요소들과 명사구의 경우 '보조사'라고 불리는 요소들이다. 또 관형형어미라고 일컫는 '은/을', 그리고 명사형어미 '음/기'들도 언급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이런 미진한 문제들을 논증 없이 필자가 갖고 있는 작업 가정으로써 소략하게나마 언급해 두고자 한다.

3-2. 보조사(또는 특수조사)는 화용적인 함의 또는 속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속뜻이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잘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다. "철수도 왔다."라는 예에서, 보조사 '도'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아무도 안 왔다."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이 어렵다. 그뿐 아니라, "잘도 하네!"라는 예에서는 때로 '못한다'는 뜻의 빈정거림이 깃들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분포들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드러나야 하겠다.

보조사의 범위는 동사구에서 찾아지는 총위 밖의 요소들에 비해 엄청나게 넓다. 보조사는 명사구에서뿐만 아니라 동사구에서도 쉽게 찾아진다. 그 까닭도 상동성 가정을 추구한다면 제대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사를 총위 밖의 화용적 요소라고 간주할 적에, 격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는'이라는 보조사가 실현될 적에는 의무적으로 격조사 '이/가'가 탈락되거나, 전혀 실현될 수 없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3-3. 명사형어미 '음/기'의 실현 층위와 그 의미자질의 배당이 문제가 된다. 이들의 실현 층위는 '다+기'(떠난다기에)가 '다+하기'(떠난다 하기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쉽게 서법소와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이들의 의미자질을 찾기 위해 필자는 '잠자기, 춤추기'(*자기잠, *추기춤)라든지 '떴떴한 삶 살기'(*삶 살기)에서와 같은 동족 목적어 구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이 명사형어미들과 어떤 자질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음/기'가 계열체일 뿐만 아니라, 통합체도 이룰 수 있도록 의미자질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동족 목적어를 다룬 논문은 매우 드문데, Levin 외(1997)에서는 영어의 동족 목적어를 다루면서, 여섯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족 목적어는 '결과 상태'를 표시하고, 동족 목적어가 수식어를 가질 적에는 결과 상태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또는 평가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 결론을 수용한다면, '음'은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기'는 행위나 사건에 관련된 동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영어의 경우 동명사 어미 '-ing'는 상태와 동작 모두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므로, 중의적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낼 적에는 '음'을 쓰고 있고, 행위를 나타낼 적에는 '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관형형어미 '은/을'은 직관적으로 시제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떠났을 것이다'와 같은 예에서는 시제 형태소 뒤에 실현되고 있으므로, 시제라고 말하면 자기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시제소의 맨 윗쪽 층위의 있는 요소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양상소 층위가 된다.²⁵⁾ 양상소의 층위에서도 [±현실태](또는 '현실태:가능태'의 대립)의 여부에 의해서 '은/을'이 나뉘는

25)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필자가 제시하는 층위에서 양상소와 접속소의 융합 층위에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영어는 문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접속사 이외에도 관계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요소들은 국어로 번역될 때에 다수 접속소(= 연결어미)로 구현해 주어야 자연스럽다. 필자의 생각으로 영어의 접속소는 고유한 'and'와 여러 관계대명사들이 상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어의 경우 '은/을'은 반드시 뒤에 접속소가 통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은고, *은과) 부기해 놓은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접속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일 '은/을'을 자질로 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태라는 뜻은 현재와 과거 세계의 일에 대하여 이미 확인이 이루어져 있다는 뜻을 지니며, 가능태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를 양상 논리학에서의 용어와 관련짓는다면, 현실세계에서의 일과 가능세계에서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던/는'은 [±경험 완료]의 자질을 갖는 '더/느'가 '은'에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더라.”에서는 왜 화자 자신이 주어로 나올 수 없을까? 또 조건절이나 관형절로 되면, “내가 거기 갔더라면”이나 “[내가 e_i 먹던] 밥”에서와 같이 왜 그런 제약이 사라지는 것일까? ‘더’는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완료했음을 나타낸다. 꿈속에서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내 자신을 제 3자처럼 관찰하고 경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가 밥을 먹더라’는 쓰일 수 없다. 그런데, 이 형태소 위에 다시 양상소로서 [+현실태]의 ‘은’이 실현되면, 후핵성 매개변항에 따라 [+현실태]의 자질과 어울리는 요소만이 살아남는다. [내가 e 먹던]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내가 e 먹은]과 같다. 양상소는 화자와 사건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은’이라는 양상소가 결합된 ‘내가 e 먹다’라는 명제는, 가능세계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세계에서의 일임을 뜻한다. 즉, 이미 확인되고 인식된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양상소 층위 밑에 ‘경험 완료’의 의미를 지닌 시제소가 실현되어 있으므로, 그 복합 의미로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단절된 세계에 대한 확인이나 인식이 나오게 된다. 이 내용이 ‘중단’이란 말로 기술되어 왔던 실체이다.²⁶⁾

시한다면 이들이 거느리는 XP가 “현실에서 확인된다 : 장차 확인될 수 있다” 정도의 대립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러 ‘겠’과 ‘을 것’을 대립시켜 다루기도 하였는데, ‘겠’은 ‘근접성 인식’이라는 기본 자질로부터 ‘짐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을 것’을 ‘장차 확인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9시 뉴스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있을 때 다음날 일정을 소개하면서 결코 ‘겠’을 쓰지 않고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예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도 미리 예정된 계획에 따라 장차 확인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6) “*먹더을, *먹었은, *먹더는, *먹겠은, *먹다은...”과 같이 통합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양상소의 자질과 하위의 시제소 자질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을'은 가능세계에서의 일임을 인식하는 것인데,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먹겠을, 먹었을'과 같이 전혀 다른 시제소가 결합되더라도 '을'이 통합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먹겠, 먹었'이라는 사건을, 화자가 가능세계의 일로 파악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3-5. 이상에서 미진한 문제들이 (7)에 제시된 층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그 층위들 속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작업 가정으로서 필자는 보조사가 층위 밖에 있는 화용 차원의 것이고, '은/을'은 양상소의 갈래이며, '은/기'는 서법소와 상보분포를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IV

이 글에서 거론한 '상동성' 가정은 아직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다. 필자의 논증 방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동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기능범주들이 보여 주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일찍서부터 "언어는 제약되어 있는 실체이다, 언어는 유한한 도구를 무한하게 쓰는 장치이다."라는 화두를 들어왔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언어를 연구하는 이들은 그 화두를 현실 언어 자료로부터 확인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상동성 가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이는 언어가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제약되어 있는 개념을 여기저기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측면을 드러내 주게 된다. 특히, 어휘범주들의 개별 항목들은 우리의 생활 모습이 달라짐으로써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기능범주의 개별 항목들은 매우 보수적일 수 있고, 또한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런 소박한 가정이 실제의 것으로 확정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개념이란 기능범주의 테두리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명윤 (1991)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신문화사
- 김지홍 (1997) "명사구를 필요로 하는 기능범주에 대하여," 배달말 22집
_____ (1998) "접속 구문의 형식화 연구," 배달말 23집
- 이승녕 (1983) "국어의 인대명사와 신분성 지배에 대하여,"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22집
- 손남익 (1999) "국어 부사격 연구," 한국어학회 편(1999)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Abney, S.(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Sentential Aspect," MIT 박사논문
- Baker, M.(1996) "On the Structural Positions on Themes and Goals," Rooryck의 편(1996)
_____ (1997) "Thematic Roles and Syntactic Structure," Haegeman 편(1997)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대학 출판부: 고석주(1998) 격, 한신문화사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출판부
- Comrie(1976) Aspect, Cambridge 대학 출판부: 이철수 외(1998) 동사 상의 이해, 한신문화사
- Dalrymple M, et al. (1999) "Interactions of Scope and Ellipsis," Lappin 외 편(1999)
- Dirven, R. and G. Radden eds.(1987) Concepts of Case,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Gerdts, D.(1985) "Surface Case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Korean," Harvard WOKL 1
- Giorgi, A. and G. Longobardi (1991) The Syntax of Noun Phrases, Cambridge 대학 출판부
- Greenberg, J.(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3, CSLI(Stanford Univ.)
- Grice, H.(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대학 출판부
- Grimshaw, J.(1990) Argument Structure, MIT 출판부: 김희숙 외(1999) 논항구조론, 한국문화사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MIT 출판부: 양정석 외(1999) 의미구조론, 한신문화사
- Krifka, M.(1990) "Boolean and Non-Boolean 'and'," Kálmán의 편(1990)
- Levin, B., G. Song and B. Atkins (1997) "Making Sense of Corpus Data," Int'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2-1.
- Levin B. and M. Rappaport (1998) "Building Verb Meanings," Buttdhl 편(1998)
- Löbel, E.(1990) "Q as a Functional Category," Bhatt외 편(1993)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 Ouhalla, J.(1991) *Functional Categories and Parametric Variation*, Routledge
- Perlmutter, D.(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BLS*
- Pinker, S.(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MIT 출판부
- Pollock, J.(1988)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 20-3
- Talmy, L.(1983) "How Language Structures Space," Pick의 편(1983)
- Tang, J.(1990) "Chinese Phrase Structure and the Extended X bar-Theory," Cornell 박사논문
- Watanabe, A.(1993) "AGR-Based Case Theor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A-bar System," MIT박사논문
- Wielder(1997) "Some Properties of Ellipsis in Coordination," Alexiadon의 편(1997)

jhongkim@nongae.gsnu.ac.kr